

두산연강예술상 수상자
이오진 신작

히스테리 앵자이어티
춤추는 할머니
Hysterie, Anxiety and
Dancing Granny



2025.11.26—12.14
두산아트센터 Space111



**히스테리 앵자이어티
춤추는 할머니
Hysterie, Anxiety and
Dancing Granny**

1막과 2막의 세계관을 위한 리서치

장지영(드라마터그)

<히스테리 앵자이어티 춤추는 할머니(이하 춤추는 할머니)>는 2025년 현재를 살아가는 여성의 삶을 그린 1막과 2058년의 미래를 살아가는 여성들의 삶을 그린 2막으로 구성되어 있다. 1막은 현재를 살아가는 여성들의 히스테리와 불안을 최대한 실체적으로 그려내었고, 2막은 ‘오지 않은 노년’을 상상해 보았다. 1막을 위해 참고한 주요 자료를 발췌하여 소개한다.

“우울과 같이 병리적인 상태를 설명할 때 그 원인은 남성의 ‘정상’적인 몸이 아닌, 그를 힘들게 한 외부적 요인, 곧 사회문화적인 조건에서 찾아진다. 반대로 여성의 우울은 그 원인이 여성의 ‘비정상’적인 몸 안에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곧 여성이 아픈 것은 ‘원래 그렇게 태어나서’이다.”

- 하미나, 『미쳐있고 괴상하며 오만하고 똑똑한 여자들』, 동아시아, 2021, pp.22-24.

“특정한 감정의 대상은 ‘타자’, ‘경계 밖의 존재’, ‘우리과 다른 존재’로 인식되고, 공동체의 위협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이

감정의 대상이 되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살피고, 그들의 증언을 듣지 않으려는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배우고 증언이 가 닿을 방법을 모색하는 데 정치적 투쟁이 있다.”

- 사라 아메드, 시우 옮김, 『감정의 문화정치』, 오월의 봄, 2023.

노년의 실체적 삶을 상상하기 위해 2023년 실시된 노인실태조사 보고서를 참조하였다. 노인실태조사는 노인복지법 제5조에 근거한 법정조사로 2007년 법제화 이후 2008년부터 3년 주기로 수행되었으며, 2023년 노인실태조사는 여섯 번째 조사로 실시되었다. 이 연구를 통해 노년의 삶에 대한 실체적 사실에 접근할 수 있었다.

노년의 삶의 구체적 면모를 들여다보기 위한 자료로는 김혜경의 2020년 논문 「재가돌봄 노인의 일기를 통해 본 ‘돌봄받음’의 경험과 인식」¹, 구자경·장은정·박경애의 2022년 논문 「‘인지저하’ 어머니를 돌보는 한 중년여성의 이야기」² 등이 있었다.

“육체적 고통과 무력함, 미안함, 그리고 슬픔과 죽음 기원의 서사가 중심적이지만 노인의 일기는 그러나 그렇게 단면적이거나 통일적이지는 않다. 앞에서 본 것처럼 미안함은 특히 자식에 대해서만 나타나며, 대조적으로 유급돌봄자에 대해서는 명백한 요구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돌봄을 받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소소하게나마 일상적인 돌봄을 제공해주어야 했던 남편에 대한 태도는 냉정하기만 하다. 이외에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던 노인이라는 설명이 무색하리만치 높은 정치적 관심을 드러내기도 한다.”

김혜경, 「재가돌봄 노인의 일기를 통해 본 ‘돌봄받음’의 경험과 인식」, 『가족과 문화』, 32(2), 2020, pp.137-179.

2막은 미래를 배경으로 한다. 2058년의 한국에는 날아다니는 자동차가 등장하여 전국 곳곳에 ‘항공도로’가 건설되고, 의료보험은 민영화되어 개인의 의료비 부담이 급증한다. 동시에 2029년 법제화된 생활동반자법에 의해 성별을 막론하고 생활 동반자 지정이 가능해졌으며, 2054년에는 생활동반자법에 더해 다수의 개인이 사회적 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회적 가족법이 제정되었다. 2021년 권수정 의원에 의해 서울시 의회에서 대표발의된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안>과 가족구성권 연구소의 논문을 바탕으로 하여 ‘사회적 가족’의 개념을 습득하였고, 생활 동반자법에서 한 발 더 나아 간 형태의 ‘가족’을 상상해보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 다양한 ‘사회적 가족’들은 혼인·혈연을 넘어서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의 삶에 의지처가 되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가족이 아니라 사회를

다시 만들어 가는 시민적 유대를 실천하고 있음. 그러나, 주거, 의료, 장례, 사회 보장제도 등에서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에 따른 차별을 경험하고 있음을 주요하게 확인함. 다양한 관계에 대한 배제와 차별이 아니라, 혼인·혈연 중심의 삶을 넘나드는 유동적이고 개방적인 관계를 포괄하는 정책의 변화가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공동체의 토대이며, 인권의 출발임을 가시화하고자 하였음.”

- 가족구성권 연구소, 『서울시 사회적 가족의 지위 보장 및 지원방안 연구』, 2019.

위 연구를 참조하여 만든 2막의 세계관은 아래와 같다.

- 친족법 중 혼인에 관한 조항의 개정 : 혼인관계를 맺는 데 성별 제한이 폐지 됨.

- 생활동반자법 법제화 : 성인 2인이 상호 동의 하에 생활 동반자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상속, 입양, 사회보장 혜택 등 혼인관계와 동일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음.

- 생활 동반자, 혼인 가운데는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음. 중혼이 불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로, 생활동반자 관계는 1인과만 맺을 수 있음. 새로운 사람과 생활동반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생활동반자 관계 해소 절차가 필요.

- 혼인의 경우 배우자의 가족과도 인척관계가 성립하지만 생활동반자는 1:1 관계에만 국한되므로 상대방의 가족과는 인척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따라서 생활동반자 당사자의 재산에 대한 상속, 연명의료 결정 등의 권리는 성립하지만

1 김혜경, 「재가돌봄 노인의 일기를 통해 본 ‘돌봄받음’의 경험과 인식」, 『가족과 문화』, 32(2), 2020, pp.137-179.

2 구자경, 장은정, 박경애. 「‘인지저하’ 어머니를 돌보는 한 중년여성의 이야기」, 『독서치료연구』, 14(2), 2022, pp.1-28.

생활동반자의 원가족(부모/형제 등)의 재산, 연명의료 결정 등에 대한 권리 주장은 불가능함.

- 생활동반자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은 연인 혹은 사실혼 관계의 사람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음.

- 사회적 가족법 : 사회적 가족은 혈연/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다수의 개인이 일상생활, 경제적 협력, 생활 돌봄 등을 공유하는 형태를 말한다. 생활동반자 등록은 동거를 전제로 하지만, 사회적 가족의 경우 동거는 필수 조건이 아니다. 사회적 가족으로 등록하는 절차가 존재하고, 사회적 가족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사회적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들은 (회사)경조사비 지원/의료보험 혜택/ 가족수당/가족 세금 공제 혜택/의료법 상 보호자 등록/행복주택 신청 등의 사회보장적 혜택을 이용할 수 있으나 상속, 입양 등의 권리는 제한된다. 사회적 가족의 구성원이 모두 한 번에 등록할 필요는 없고, 확장과 축소 모두 가능하다. 사회적 가족은 반드시 경제 공동체가 될 필요가 없으므로, 경제적 공동체 형성을 원한다면 사회적 가족 등록을 하면서 재산권에 대한 약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생활동반자 관계의 2인이 모두 동의한다는 전제 하에 그 2인을 포함한 확대된 사회적 가족을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 2029년 동성혼 불허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국회가 2029년 생활동반자법과 동성혼에 관한 법률을 먼저 제정하였고, 사회적 가족법은 그로부터 25년 후인 2054년

제정되었다.

참고 자료

생활동반자 법 관련
-2023년 용혜인 의원 대표 발의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2023년 장혜영 의원 대표 발의 <가족구성권 3법(동성간 부부를 인정하는 민법개정안, 생활동반자 등록에 관한 특별법 제정, 비혼출산을 지원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

사회적 가족법 관련
-2021년 서울시 의회 권수정 의원 대표 발의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안>
-가족 구성권 연구소 <서울시 사회적 가족의 지위 보장 및 지원방안 연구>(2019)

장지영(드라마터그)

<히스테리 앵자이어티 춤추는 할머니>의 프로덕션은 20대에서 50대까지의 연령대에 이르는 다수의 여성 창작자들과 비슷한 또래인 소수의 남성 창작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비교적 동질한 연령대의, 단일한 직업군에 종사하고 따라서 생활 패턴과 활동 반경이 유사한 사람들의 집단이다. 프로덕션의 구성원 가운데 노년의 인물은 없으며, 가족 혹은 친밀한 관계의 노인과 동거하고 있는 사람도 거의 없다. 노년의 삶이라는 것은 연출과 배우를 비롯한 모두에게 당연한 현실은 아니다. 말하자면 이 작업에 노년 당사자성은 없다. 그렇다면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존중하는 태도로 상상하는 것이고, 우리는 현재에서 그 상상을 시작해보기로 했다. ‘로또 1등 되면’ 같은 상상이 아닌 이상, 미래의 구상은 현재에서 출발한다. 30년 후에 내가 건강할 수 있을지는 현재 나의 생활 습관 및 건강 상태와 관련이 있고, 20년 후의 내 자산이 얼마일지는 현재 내 직업 및 자산과 관련이 있다. 미래는 현재와 아무런 관계없이 어떤 시간에 덩그러니 놓인 것이 아니라, 현재의 내가 가 닿은 어느 지점이라는 곳에서 작업을 시작했다. 미래를 생각하면 우리는 보통 불안했다.

아무래도 좀 가난할 것 같고, 아무래도 건강하지 않을 것 같고, 아무래도 혼자일 것 같았다. 그 불안의 근원은 현재에 있다. 작업을 구상하던 당시 연출과 나는 ‘연봉 4000 받는 회사원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 본 적이 있다. 살아본 적 없는 삶이다. 서울에 아파트 매매하고 아이 키우며 살기 충분한 금액은 아닐지언정, 꼬박꼬박 나오는 월급이 있어서 10년 후를 예측할 수 있으면 좀 덜 불안할까? 알 수는 없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미래에 대한 불안은 있을지 모른다. 각자에게 고유한 불안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불안과 히스테리를 직면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을 것이었다. 그리고 그 불안을 마음껏 드러내기로 했다. 히스테리를 여성 고유의 질병으로 봤던 유구한 역사를 전유하여, 마음껏 히스테리 부리고 불안을 드러내기로 했다.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정제하지 않고 드러냄으로써, 여성들에게 허락되지 않았던 감정이 무엇인지를 역설적으로 보이고자 했다. 사라 아메드는 증오와 공포, 또는 혐오나 수치심, 사랑 등의 감정이 역사적 차원에서 ‘주류’와 ‘비주류’를 구분하는 접착적 기능을 통해 지속적인 사회적 규범을 형성해왔다는 사실을 지적한다.³

이제껏 히스테리와 불안, 우울은 여성에게 두드러지는 것으로, 따라서 여성은 감성적이며 자신의 감정을 관리하기 어려운 존재로 여겨졌다. 그 통념에 “그래서 어쩌라고”로 응수하는 작업을 통해, “소외된 정서”(alien affect) 속에서 작성된 여성들의 문헌을 통해, 행복의 기호 아래 누가 소외되고 무엇이 은폐되었는지를 보여 주기⁴로 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두가, 아주 건강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할머니가 될 때까지 살아있는 그림을 그려 보고자 했다. 죽어도 좋은 나이란 없겠지만, 적어도 할머니가 되어본 후에 죽을 수 있도록. ‘춤추는 할머니’가 되려면 우선 할머니가 되어야 하니까. 그때까지 어떻게든 모두 살아있는 모습을 상상하고자 했다. 행복한 할머니, 부자 할머니, 조식 뷔페에 매일 가는 할머니는 우리의 미래가 아닐지 몰라도 ‘할머니’는 우리의 미래일 수 있다. 사실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3 이다은, 「1930년대 이선희 소설에 나타난 ‘감정’의 정치성 : 사라 아메드(Sara Ahmed)의 감정 이론을 중심으로」, 『현대유럽철학연구』, 제74집, 2024, pp.275-316.

4 박미선, 「행복을 통한 규율과 “정서적 변환”의 정치 비판 - 사라 아메드의 『행복의 약속』, 『도시인문학연구』, 제8권 제2호, 2016, pp.53-78.

단편선(작곡가)

여름부터 가을까지, 어쩐지 정신없이
내달린 느낌이다.

프로덕션에 들어간 것은 여름이었지만,
이 극에 관해 처음 들은 것은 지난 해인
2024년 가을쯤이었다. 오진이 대뜸
연락을 해 어쩐지 다급한 말투로 ‘혼종의
음악극’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 밖에도
뭐라 말했을 텐데 잘 기억이 나질 않는다.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어쨌건 오진이 “같이
해야지”라고 했다. 나는 “그러자” 했다.
어쨌든 쓰임이 있다는 건 기쁜 일이기
때문이다.

오진이 처음 생각한 것과 지금의 것은
완전히 다른 극이라 해도 무방할 정도로
다르다. 어떤 종류의 프로젝트건, 구상을
뒤엎는 데는 큰 에너지가 든다. 우리는
함께 여러 번 구상을 뒤엎었고, 자주
길을 잃었지만 운이 좋아 지금의 길에
들어섰다. 돌이켜보면 많은 것들이 운,
그리고 순간적이고 직관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되었다. 그 모든 것을 이성적인
판단이라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성만으로 극을 만들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게 가능하다 해도, 그렇게 만들고 싶지는
않다.)

배우들과 거의 처음 만난 자리에서, 나는
뮤지컬을 만들기 싫다고 말했다. 그건 아마

내러티브를 전달하거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음악을 만들고
싶지 않다는 뜻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그때 나는 하기 싫은 것만 있었지, 막상
대안은 없었다. 뮤지컬과는 다른 ‘음악극’이
무엇인지에 관한 자기만의 정의가 없었다는
말이다. 결국은 더듬더듬… 기어갈
수밖에 없었다. 오진과 연출부, 배우들과
함께 엉금엉금… 질질… 기어갔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극은 그 결과다.

그 결과가 ‘음악극’이 맞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혼종의 음악’이 담긴
‘극’—다시 말하자면 이질적인 소리나 몸짓
같은 것들이 얹히고설켜 음악처럼 들리는
어떤 덩어리를 구현하게 되었다고는 말할
수 있다.

부러 매만지지 않았고, 어떤 부분은
어수룩한 채로 그냥 내버려 두었으며, 어떤
데는 목숨 걸고 세공했다. 그것들은 내게
징그럽지만 약간의 귀여운 구석도 있는
조그마한 괴물들처럼 느껴진다. 마치 옛
동화 속의 짓궂은 요정이나 도깨비들처럼,
그 괴물들이 극을 망치기도, 흔들어놓기도,
때로는 윤택하게 만들어주거나, 뒷통수를
치거나, 보듬어주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그럼 됐다.



어떤 여자들은

단편선 / 이오진

Intro

Sop.

Alto

Verse

9

(다함께) 어 떤 여 자 들 은 노 벨 상 을 탄 다

13

어 떤 여 자 들 은 아 파 트 에 살 고

Bridge

17

(순미) 어 떤 여 자 느 - 은 킥 북 싱 을 한 다

(대진, 은희) 아 아 아 아 아 아

21

(미영) 어 떤 여 자 는 새 벽 네 시 반 에 일 어 나 - 아

아 아 아 아 아 아

We Love Urim

단편선

G F#7 Bm Em7 A Dmaj7 D7

(미영) 유 림 이 가 내 꿈 에 왜 왔 을 까

5 G F#7 Bm E Em7 **rit.** Asus4 A7

(순미) 무 언 가 걱 정 이 되 는 걸 까 그 게 아 니 - 면?

9 **a tempo**

유 림 이 가 날 선택 했 어 분명 신 의 계 시 모두 다 내 꺼 야 (Yes!)

13

유 림 이 가 날 선택 했 어 너 무 사 랑 스 러 모두 다 내 꺼 야 (Mine!)

17

(대진) 생 활 동 반 자 법 에 따 라 내 가 일 순 위 (Yeah!)

25

(화정) 말 년 에 결 을 지 켜 준 건 바 로 나 니 까 (Yeah!)

33

(순미) 난 조 금 이 면 돼 남 편 있 으 니 까 많 이 필 요 없 어 남 편 있 으 니 까

37

(미영) 좋 은 사 람 이 다 고 마 운 사 람 맨 날 밥 해 준 건 그 건 바 로 나 (약!)

41

(Yeah!) (Yeah!)

45

유 림 이 가 날 선택 했 어 (Yeah!) 유 림 이 가 날 선택 했 어 (Yeah!)

두산연강예술상 수상자 이오진

이오진(호랑이기운 작·연출가)



작·연출
〈청년부에 미친 헤인이〉

윤색·연출
〈댄스 네이션〉

연출
〈아침에 한 번에 일어날 수 있어요?〉
〈성공적인 직업생활〉 〈애 개 아파트〉
〈피어리스: 더 하이스쿨 맥베스〉 외

작
〈김이박이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김이박이
고등학교에 입학한다〉 〈우리는 적당히 가까워〉 외

수상·선정
2023 두산연강예술상 공연 예술부문
2023 한국연극 선정 공연 베스트 7
〈댄스 네이션〉
2023 한국연극평론가협회 선정 올해의 연극
베스트 3 〈댄스 네이션〉
2022 한국연극 선정 공연 베스트 7 〈콜타임〉
2016 대산창작기금 수혜



연출가의 글

이오진(연출가)

<히스토리 앵자이어티 춤추는 할머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각자의 ‘불안’을 감내하며 개인의 역사 속에서 존재하는지, 그 과정에서 서로와 어떻게 연루되는지 작품의 구조와 내용을 통해 복합적으로 구현해보고자 한 공연이었다. 배우들은 각자의 이야기를 쓰고 연기하는 창작자이자 불안한 한 개인이고, 노년의 삶을 상상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무대 위 인물들이며, 지금 산 자이며 언젠가는 떠날 이들이다. 관객들도 그렇다.

이 극에 관한 이야기를 처음 떠올린 것은 2024년 봄 즈음으로 기억한다. 단편선과 ‘음악’이 없으면 안 되는 공연을 만들고 싶었고, 배우들이 직접 쓰고 연기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민주주의’랑 닿아있다고 생각했다. 연출에게 대체로 너무 많은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두산연강예술상 수상 즈음에 극단을 같이 시작했던 동료를 잃었다. 나는 결국 더 살고 싶다고 생각했고, 살아야 하는 이유를 모두에게 설득하고 싶었다. 관객에게도 가 닿기를 바랐다.

위 맥락에서 1막의 세계를 만드는 것이 당연했다. 배우들은 봄부터 여름까지 본인의 서사를 꺼내어 주셨다. 놀라운 글들이었고, 나에게 편집 권한이 주어졌다. 2막의 세계를 만든 것은 단편선과 드라마터그 지영의 아이디어였다. 망원동의 한 카페에서 뭔가 더 있어야 한다고 그들이 말했고, 현대 영화의 문법이 극의 중간에서 완전히 비틀린다는 것을 책에서 배울 즈음이었다.

2025년 봄부터 배우들과 6회의 워크숍을 하였다. 현재와 노년에 대해 느끼는 불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뭐가 됐건 똑바로 바라봐야 한다, 함부로 위로하거나 낙관하거나 긍정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 상황 파악 제대로 하고 서로의 다름을 알되 서로 용인해야 한다, 근데 그게 되냐, 그래도 이 삶을 같이 살고 싶다. 아주 다른 사람들과 닿고 싶다. 아주 다른 사람까지 닿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오래 했던 것 같다. 배우님들도 스태프 분들도 곁에서 봐오면서 존경하던 분들이었고 그분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오랜 시간 경청해주셨는지, 그리고 어떤 태도로 작업을 만들어 주셨는지 기억한다. 이분들의 공연이 관객들에게도 좋은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좋은 것은 우리가 만든 걸 보여 드리려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덜 불안하고, 그래도 공연 보는 동안은 좀 좋고, 집에 돌아가서는 꼭 잠드시길 바라며 공연을 만들었다.

건강하시길 바란다. 보러 와 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도 그냥 하지 않겠다.

무대디자이너의 글

장호(무대디자이너)

극장 속 나무는 이 무대의 중심 구조물이자 시간의 흐름을 드러내는 상징이다. 마을과 공동체를 지키는 수호신인 성황당을 모티브로 삼은 이번 무대는 여자들이 시간을 넘나들며 삶에 대한 분노와 불안, 가난에 대한 서사를 펼쳐가는 동안, 과거, 현재, 미래의 압축적인 정동을 보여주는 시공간이 되고자 했다.

무대 위에서 끊임없이 욕망하는 여자들의 춤과 노래는 결국 그녀들이 외치는 비명소리의 다른 형태일 것이다. 각각 다른 형태와 색을 가진 의자들과 색색의 천 조각들은 가부장제사회속에서 여자들에게 반복되는 미세한 억압과 차별, 결여와 결핍으로 인해 히스테리한, 히스테리할 수밖에 없는, 히스테리여야만 하는 상태 속에서도 삶을 놓지 않고 삶에 자신을 묶어내는 과정을 형상화해보았다.

나무와 나무 사이를 밧줄로 이어서 안과 밖을 나누고 그녀들이 어떠한 날것의 고백도 할 수 있는 안전한 연결을 만들고자 했다.



김유림(배우)

*2025년 7월부터 김유림, 김은희, 이화정, 정대진, 황미영, 황순미 배우는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 중 일부를 발췌한다.



우는 이유야
뻘췌고
이십대는 원래
시시한 일로 슬프니까

김은희(배우)

>죽음2

J야!

이 얘기는 정말 하고 싶지 않았는데... 한다.

그 연습은 처음부터 죽을 맛이었어.

막 갱년기로 접어들었고, 생리도 끝물, 급작스럽게 식은땀, 붉은 뺨. 보통의 갱년기 증후군은 모조리 한자리에. 제일 죽겠는 건 불면의 밤들. 새벽 내내 누워있다 일어나면 눈물인지 땀인지로 범벅이 된 잠옷을 두어 번씩 갈아입었어. 눈이 아니라 몸에서 눈물이 난다는 걸 그 때 알았어. 성대앞 가정의학과에서 한 달 치 졸피뎀을 처방받고, 간신히 견디는 날들이었어.

졸피뎀이라는게 졸라 신기한 게 먹고 20분쯤이면 저세상으로 간다. 다시 험릿 “죽는다, 잠을 잔다— 그뿐 아닌가, 잠이 들면 마음의 고통과 육체가 이어받은 오만가지 고통도 끝이 난다. 그거야말로 바라는 바 최상의 종말 아닌가. 죽는다, 잠을 잔다! 잠을 자면 꿈을 꾸게 되겠지. 암, 그게 골칫거리란 말이야, 죽음이야, 잠잘 때 이 인생의 번뇌를 벗어난다 해도, 어떤 악몽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면 망설이지 않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괴로운 삶을 오래오래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닌가.”

연습실로 입장하면 영혼 없는 인사를 던지고, 커다란 기둥 뒤로 숨는다. 내 자리다. 요가 매트를 깔고 대본을 꺼내고... 씨발! 또 하루가 시작이군.

맥베스“올테면 오라고해. 날이 암만 험악해도 세월은 흐른다.”

그때,

난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겠구나?!

저걸 죽이고 끝낼까?!

내내 살의를 갖고 있었다.

갱년기의 바디와 정신이었다고 하기엔 좀 아쉽다.

누군가를 죽이고 싶었던 적이 있었던가?

무엇 때문에 죽이고 싶을까?

굴욕감과 무시였다.

무시당했고, 나는 굴욕감 몸 둘 바를 모르고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2003년 그 연습실에서. 떨어져나가 하수구로 정수처리장으로 하천으로 바다로 오대양을 돌고 아리수로 환생하여

2021년 오늘 아침 샤워 중에 내 몸에 다시 붙어 버린 거다. 닥터제로 필터 샤워기로 바꿨다면... 괜찮았을까?

그 연습실에서, 살아나고 있었다.

나는 밤마다

맥베스 부인처럼 잠을 자지 못하고 걷고 있었다. 살의를 품고.

수면제를 먹고, 대사를 외우고, 질질 울고,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러다 시간이라는 게 가고 공연을 하고, 죽이고 싶었던 이도 늙어가는 걸 보면서... 잊었다.

또 맥베스 “올테면 오라고 해. 날이 암만 험악해도 세월은 흐른다”

j야!

만약에

무시의 발현 자체가 가난과 문맹, 성격적 결함 등등을 함께 한다면 더 엄청난 굴욕감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게,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내가 살인자를 절대 옹호한다는 건 아니야.

나도 언젠가 살인자가 될 뻔 했다는 이야기야!

너는 어때?

(사이)

없다구?!

(사이)

절대!

(사이)

죽을래?

이화정(배우)

눈 뜨자마자 장바구니를 들고 마트로 향한다.
 제철 채소와 과일 위주로 빠르게 스캔하고 가격에 망설였다가 늘 사는 것들만 고른다.
 상추, 버섯, 호박, 대파, 마늘 그리고 두부.
 포장지 그대로 냉장고에 그대로 들어가면 그대로 시들해질 때까지 있을 것이다.
 앓을 틈도 없이 포장지가 해체된다.
 두부만 그대로 냉장고 in.
 상추, 버섯, 호박은 포장지를 벗겨 지저분한거 제거하고 키친타올과 신문에 싸서 지퍼백에 넣은 후 냉장고 in.
 마늘의 절반은 설탕과 키친타올 깔고 랍앤락에 넣어 냉장고 in, 절반은 씻고 다듬어 다지기로 다져서 지퍼백에 납작하게 넣고 냉동실 in.
 대파는 싱크볼에 넣어 물로 세차게 씻어내고 키친타올로 닦아내서 대가리와 흰대와 초록대로 나누어 썰고 2대만 통에 맞게 썰어 냉장고 in, 나머지 흰대는 지퍼백에 넣고 초록대는 작게 썰어 지퍼백 넣어 냉동실 in.
 대가리 파뿌리들은 물에 담궈 흠 더 빼주기.
 그리고 1대는 썰어서 액젓에 담궈 양념 후 휘리릭 대파김치가 된다.
 그리고 대패삼겹살을 굽는다.
 상추를 씻어 대파김치 올리고 대패 올리고 남.

그렇게 배가 채워지면 뿌듯함이 몰려온다.
 과정은 2시간. 먹는건 10분.
 나머지 21시간 50분을 버티는 파워.

비루함과 비굴함 사이에서 밥심으로 중심을 붙잡아 본다. 배가 비면 뇌가 비고 눈이 빈다. 물기가 다 말라버린 땅 같이 허기는 버섯한 불만과 짜증이 되어 세상에 꺼내진다. 울상이 된 얼굴을 깨끗하게 펴내기 위해 밥을 먹는다. 그 어떤 음식도 괜찮지만 뿌듯함을 곁들인건 내 손으로 만든 음식 밖에 없다.

정대진(배우)

<웃놀이>

나린이가 웃놀이를 하자는 거야. 4살 밖에 안 된 조카랑 웃놀이를 해. 나린이가 웃놀이 하나 졌다고 세상 무너져라 꺼이꺼이 울어, 이기려고 거짓말도 하고, 이기려고 웃을 숨기고, 우겨. 속으로 그게 울 일인가 저렇게 까지 못나게 게임하고 싶나 싶다가도. 애니까 다 그런거지 싶다가도, 근데 아무리 어려도 그렇지 참 애가 이기적이다 싶다가도. 근데 그냥 나도 저렇게 무자비하게 울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사실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떼쓰고 소리지르고 울어도 되는 분노가 어딘가에 있는데, 우는 것으로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어른이 된 이상, 울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인간은 다 성장하고 퇴행하는 게 아니라 다시 성장하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건가.

황미영(배우)

<나의 힘>

나의 힘의 원천은 어디일까. 무엇일까.

우선 기본적으로 힘이 세다. 그냥 픽픽 쓰러지는 돼지는 아니다.

자신있게 건강한 돼지라 할순없지만 체력도 좋은 편이고 정말 운동도 많이 했고

힘쓰는 일도 많이 했다. 그리고 보니 다 과거형이네.. 계속 진행시켜!!!!

주위의 시선이나 반응때문에 무리해서 힘을 쓴 적도 많고

그것이 모두 가능해질때의 쾌감과 주위반응을 즐겼다.

무엇이 나를 힘나게 하고 나를 움직이게 하는가.

지금보다 많이 어릴 적에는 가족들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곰곰히

생각해보면 가족들이 나를 움직이게 했던 것은 아닌것 같다. 물론

마음깊이 크게 차지하고 있고 항상 가족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구성원이

되고 싶고 자랑스러운 구성원이 되고 싶은 마음은 기본적으로 깔려있다.

나의 가족은 나에게 엄청 소중한 존재이다. 아! 나 혼자만 움직여도

되게끔 환경을 만들어주신 것은 정말 무한한 은혜다.

그래서 내 스스로 움직였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도달하고 싶은

목표나 기준이나 꼭 이루고 싶다면가 뭐 그런 것들을 정하고 움직인 적은

크게 없다. 계산적이고 치밀하게 삶을 설계하고 이루고 또다시 도전하고

뭐 그런 팍팍한 삶을 살지않은것 같다. 그렇다고 대충대충 살지는

않았고 하루하루를 즐기면서 긍정적으로 남에게 피해는 주지않게

오히려 기쁨이나 배려를 주면서 살아온듯 하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생활을.. 삶을 좋아하고 사랑한다. 계속 그렇게 살고

싶고. 물론 지금히 나의 생각이지만.. 상대방의 의견들은 다르겠지만..

내 입버릇처럼 항상 말하는게 있다. 그동안 부와 명예가 되는 일들은

다 하지 않았다고. 상도덕이 중요하다. 선약이 중요하다. 물이 자주

들어왔지만 노를 젓지 않았다고. 쿨한척 멋있는척 애기는 했지만 혼자서

속앓이한적도 많다. 하지만 지나간 일에 있어서 후회하지 않았다.

속앓이도 빨리 떠나보냈다.

누가 시켜서.. 누군가의 눈치때문에..누군가의 강요로.. 뭐 이런 핑계를 대고 싶지않다. 나의 힘. 나의 힘의 원천은 오로지 내 스스로 내는 것이고 내 안에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주위에 고마운 분들이 너무 많다. 나의 가족이 있고 나는 인복이

많다. 먹을 복도 많다. 운도 좋다고 생각한다. 결론은 모든 복이 많다고

생각한다. 내가 돼지띠라서 더 복이 많을수도! 그 복은! 그 힘은!

내스스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들로 내 목을

조이거나 압박감을 느끼기보다 나의 말과 행동에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 나는 충분히 힘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가질 수 있고 잃고 싶지 않다. 어느 면에서나 각자의 기준이 다르겠지만

나의 힘을!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을 잃지 않고 유지하고 더 키워나갈수

있게 끊임없이 노력할것이다!!!!!! 힘!!!!!! 나의 힘!!!!!! POWER!!!!!!!!

황순미(배우)

<두려움>

나를 포함한 내 사람들 모두를
관계로 나이로 사회적 시선으로 정해서 하나로 불러 버리는,
그 이름 할머니 할아버지 아저씨 아줌마로부터,
누군가 그냥 불러버리면 그것이 되어버리는 강렬함으로부터 구출해야
한다.
성장기 때는 열린 미래의 희망을 가진 존재로 이야기되었다면 성인이
되면서부터는 나이에,
호칭에, 성공의 척도를 가르는 기준 따위에 지겹게 묶여왔다.
스물다섯이면 꺾였네 로 시작되어 서른즈음에를 부르기를
강요당했으며, 아줌마로 묶였고,
할머니로 묶일 예정이며,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를 부를 예정인.
내 고유의 것을 사라지게 하려고 하거나 평준화 시키려 하면 마치 이름을
지우는 것 같아, 화가 번쩍번쩍 난다.
넣지 마 거기에 우리 엄마 우리 할머니 나 우리 언니 우리 아빠 내 친구를
넣지 마 하면서 산다.
피곤하다. 하지만 나에게는 너무 중요하다.
- 묻히지 않기 내 이름 아닌 다른 이름의 틈바구니에 끼들어가지 않기 -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의 재미있는 부분을 찾는다.
이상한 발음 하나 엄지손가락을 쓰는 방식 그렇게 아주 작은 것들
그리고 나 혼자 비밀스럽게 그걸 예뻐한다.
그 사람만이 가진 고유한 작은 습관들.
그러면 그 사람은 내게 특별하고 유일한 사람이다.
그렇게 그 사람은 나에게 귀여운 사람이 된다.

각자의 그것으로 기억하고 간직하고 싶은 마음
어쩐지 나의 할머니를 상상해 보고 준비하며
나는 그걸 먼저 하고 싶고 그걸 해야만 내가 나인 할머니가 될 것 같다.

고유명사

이름있는 할머니가 되어
이름을 지어주고
나의 장례식에 이름있는, 귀여운 그들이 오는 것을 상상한다.
어쩌면 쥐나 새를 물고 올지도 모르겠다.

접근성매니저의 글

박하늘(접근성매니저)

주어진 자원 내에서 접근성을 얼마만큼 실천할 수 있을지 회의하던 날들이 떠오릅니다. 접근성 항목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것에 책임을 느끼며, 포기하게 된 것들에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번엔 더 잘 해보리라 다짐하며, 마주하고 있는 것들의 소중함을 챙기는 중입니다.

춤이 함께하는 혼종의 음악극에서 음성해설을 대신한 사전 음성소개에 얼마나 담아낼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부디 무대 및 의상 미니어처와 함께 즐겁게 관람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미니어처 제작은 각각 장호, EK 디자이너님이 해주셨습니다. 노래를 자막으로 전달하는 효과적인 방식은 임민정 제작자님이 깊이 고민해주셨습니다. 문자로 보는 음악과 소리 정보, 대사 모두 의미 있게 전해지길 바랍니다.

접근성이 있지만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휠체어석 1석이 비휠체어석 4석과 동일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해도 휠체어석의 기본값을 넓히려고 고민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휠체어석 2석으로 되었지만 그래도 지금 이만큼 와 있다는 것,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긍정하며 나아가려 합니다.

만약 저신장 관객의 발 받침대나 와상장애인의 자리처럼 준비한 접근성이 혹여나 쓰이지 못한다고 해도, 그 자리를 마땅히 준비하려 했습니다. 이 공연만이 아니더라도 극장에 다양한 자리들이 있어서 누구나 편히 오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만약 접근성 공연이 불편한 관객들이 계시다면, 감히 바라건대 평등하게 관람할 권리를 위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으면 합니다. 극장은 관객들 간의 만남이 이뤄지는 곳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같은 것을 향유하는 넓은 관람의 의미를 되짚어봅니다.

제가 접근성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안전입니다. 비상 상황 발생 시 대피 계획을 점검하고, 해당 내용을 음성과 자막으로 준비하면서, 이것이 절대 쓰일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위험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필요한 정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챙기고자 했습니다. 모두가 안전하고 즐겁게 공연장에 머물다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접근성 실천을 함께 해준 동료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느 분도 빠짐없이 협업해주셔서 많은 것들이

가능했습니다. 부족함이 있다면 오롯이 제 몫입니다.

크레딧은 공연을 만들면서 더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오진 작연출님이 비장애인도 함께 즐기는 접근성을 해야 한다며 접근성 가이드 테이블을 제안하고, 자막 정보가 음성으로도 나올 수 있게 소통하며, 전반적인 걸 확인해주셨습니다.

김유림, 김은희, 이화정, 정대진, 황미영, 황순미 배우님이 등장인물 소개 녹음을 하고, 의상 미니어처의 자세를 잡아주셨습니다.

단편선 작곡가님이 등장인물 소개 녹음 진행 및 배경음악을 보내주시고, 자막의 소리 정보를 함께 써주셨습니다.

김이슬 안무가님이 춤과 움직임 해설을 검토해주셨습니다.

장지영 드라마터그님이 트리거워닝을 검토해주셨습니다.

박세련 조연출 및 음향오퍼레이터님이 사전 음성소개에 쓸 전자기기를 빌려주시고, 무대의 크기를 같이 재는 등 접근성 관련해 팔로우해주셨습니다.

장호 무대디자이너님이 무대 미니어처와 자막 스크린을 만들어주셨습니다.

신동선 조명디자이너님이 자막이 잘 보이게 조율해주셨습니다.

배미령 음향디자이너님이 사전 음성소개 및 공연의 안내 멘트를 편집해주셨습니다.

김나연 음향감독님이 음향 부분을 확인해주셨습니다.

EK 의상디자이너님이 의상 설명 텍스트를 공유해주시고, 의상 미니어처를 만들어주셨습니다.

최새봄 의상디자이너 어시스트님이 의상 제작에 함께해주셨습니다.

이케이코스튬(EKCOSTUME) 의상

제작소에서 협업해주셨습니다.

정지윤 분장디자이너님이 분장 설명 텍스트를 보내주셨습니다.

정김소리 디자이너님이 접근성 홍보물과 좌석배치도 디자인으로 협업해주셨습니다.

강희주 홍보사진 작가님이 대체텍스트를 잘 쓸 수 있게 사진을 잘 찍어주셨습니다.

김연경 티켓매니저님이 장애인 관객 예매 확인과 응대로 협업해주셨습니다.

임민정 자막해설 제작자님이 모든 소리를 자막으로 디자인하고, 작곡, 연출, 조명 팀과 소통해주셨습니다.

한혜진 자막 오퍼레이터님이 자막이 잘 보이게 들어주셨습니다.

박소은 조명 오퍼레이터님이 조명이 잘 보이게 들어주셨습니다.

이서연 기록사진 작가님이 접근성이 녹아든 공연을 사진에 잘 담아주셨습니다.

정근호 기록영상 작가님이 접근성이 녹아든 공연을 영상에 잘 담아주셨습니다.

김성덕 무대감독님이 발 받침대를 만들고, 연습부터 두 번째 공연까지 접근성 진행 상황을 함께 확인해주셨습니다.

주준성 무대조감독님이 셋업부터 공연 내내 원활한 진행을 맡아주셨습니다.

강윤지 피디님이 접근성 관련 문구를 같이 점검해주셨고, 다방면으로 소통해주셨습니다.

그 외 무대팀, 조명팀 크루분들도 협업해주셨습니다.

두산아트센터 스태프분들도 협업해주셨습니다.

남윤일 피디님이 상견례 때 포문을 잘 열어주시고 기술스텝회의도 진행해주셨습니다.

이정민 피디님이 엘리베이터 크기를 알려주시고, 전체 상황을 팔로우해주셨습니다.

강소라 홍보마케팅 담당자님이 극장의
접근성 관련한 사례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유지민 하우스매니저님이 접근성 가이드
테이블을 빌려주시고, 관람예절 멘트
공유, 비상대피 관련 설명, 이동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권지은 하우스매니저님이 이동지원 및
비상상황 발생 시 휠체어이용자 대피를
함께해주기로 하셨습니다.

이연서 티켓매니저님이 접근성 가이드
테이블에 쓸 POP을 빌려주셨습니다.

김지은 티켓매니저님이 참고용
좌석배치도를 보내주셨고, 미니어처들을
보관해주셨습니다.

박소연 무대감독님이 하우스 오픈, 공연 전,
공연시작, 비상 상황 발생 시 안내 멘트를
점검해주셨습니다.

강현후 무대감독님이 안전교육을
진행해주셨습니다.

류호성 음향감독님이 기술스텝회의를
함께해주셨습니다.

김수민 조명감독님이 셋업 때 안전을
확인해주시고, 기술스텝회의를
함께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관객분들께서 객석을
채워주셨습니다.

함께해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작업 과정 기록

춤추는 섬, 춤추는 할머니 : 작업 과정 기록

박세련 (조연출)

두산연강예술상 이오진 신작 <히스테리 앵자이어티 춤추는 할머니>는 배우 6명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거나 들추어내며 ‘히스테리’와 ‘앵자이어티’라는 키워드를 안고 던진 질문들을 토대로 쓰인 텍스트를 기반으로, 작가·연출 이오진이 구성한 공동창작 작품이다.

이번 작업 과정에서는 어딘가 모호하고 이상하며 기이한 순간들을 포착하기 위한 시도를 중심으로 연습이 진행되었다. 배우의 연기적 접근, 음악의 흐름, 움직임 구성, 의상, 분장, 무대, 조명, 자막, 홍보물 등 공연예술이 갖고 있거나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언어가 유기적이되 지나치게 따듯하지 않도록, 연대하되 그것이 전부가 되지 않도록 작품 안에 담고자 각 파트가 얹히고설키는 과정을 거쳤다.

나는 이 작업의 키워드를 ‘섬’이라 불렀다. 우리는 각자의 ‘섬’으로 무대 위에 존재하고자 했다. ‘섬’이기 때문에 서로를 완전히 만날 수도 없고 아직 어떤 것에는 가닿을 수 없지만, 거대한 땅 위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그리고 그것을 지금 여기서 각자 감각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역설적으로 함께 존재함을, 나아가 우리가 실현하길 바라는 연대의 태도를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오늘의 경험이 묻어있는 ‘노년’의 ‘춤추는 할머니’가 된 ‘나’를 ‘상상’해보길 ‘희망’한다.

작업 과정 기록

6월

-연출부 작업 방향성 및 방법론 회의
: 작품 의도, 주제, 리서치 방향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몇차례 회의를 가졌다.
: 키워드를 중심으로 배우들과 진행할 글쓰기 워크숍 계획을 했다.

7-8월

-배우 미팅 및 배우 글쓰기 워크숍 6회 진행
: 매일매일 써보는 것, 각자가 참고하는 책이나 글들도 함께 기록하는 방식으로 배우들의 글쓰기를 진행했다.
: 배우 6명은 각자 20~120 페이지 분량의 글쓰기를 수행했다.



글쓰기 질문 모음

1. 지난 3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경제생활: 공통 주제)
2. 19살로 돌아가보기 - 떠오르는 5분 이내의 어느 짧은 순간을 기록한다면.
3. 나를 패고 싶을 때가 있는지. 왜인가. 순간의 기록.
- 3-1. 나를 패고 싶다면 어떻게 패고 싶다고 생각하는지....
4. 나의 79살, 7월 8일의 기록.
6. 나는 누구처럼 되고 싶(었)나.
7. 내가 거의 매일 하는 일이 있던가? 남들에게 잘 이야기 하지 않는...
8. 두 명의 사람이 어딘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들의 대화를 적어 보자.
- 5분 이내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좋으나. 누구인가. 어디인가. 떠오르는 장소 중에 여덟 번째 것으로 골라 볼까?
9. 사람들이 알면 약간 놀랄 만한 그러나 말하지 못한 나의 사랑스러운 면이 있는가?
10. 가족 중 한 사람과의 대화의 어느 순간. 최대한 편집 없이 적어 본다면...
11. 나에게 중요한 중요했던 어떤 장소. 왜 중요했나? 그 공간을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쳤나. 그 공간을 구체적으로 묘사해본다면.
12. 삶은 비루한 것이지만 남들에게 굳이 티내지 않으려 한다. 내가 비루한 인생을 버티게 만드는 귀한 순간들이 있다. 내 힘으로 내가 만든 것. 1분 이내의 순간으로.
13. 불안할 때의 나. 그 불안은 어디서 어떨 때 오나. 어떤 공통점이 있나. 글로 써본다면. 글의 형태는 상관없다.
14. 나의 불안과 힘에 대해 떠올려보기.
15. ‘죽음’에 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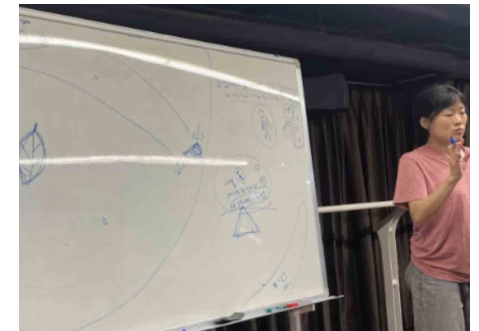
9월

-음악 및 대본 작업
: 공동창작 텍스트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

배우들이 쓴 글을 가지고 오진이 초안을 작성한 뒤 다시 디벨롭 과정을 배우들과 함께 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 ‘어처구니가 없어야 함’이라는 연출의 음악적 제안을 기반한 혼종의 음악 작업을 진행 했다.

10월

-본격적인 연습 시작
-테이블 작업. 드라마터그가 제안한 리서치 자료 공유.
: 자기 이야기-몸-안전을 중심으로. 제롬벨<갈라> <군무 무용수>, 서울시 사회적 가족의 지위 보장 및 지원방안 연구(2019),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2023) 외 다수의 참고자료를 함께 읽고 토론을 진행.



: 오진 “내 몸, 물리적인 몸, 섹슈얼리티, 나의 성별, 가치관, 생각들이 역사 위에 놓여 있다는 것으로부터 오진의 작업은 출발했다. 내 삶의 역사와 한국의 역사가 함께 가고 있다고 생각된다.”

-안무 및 음악 연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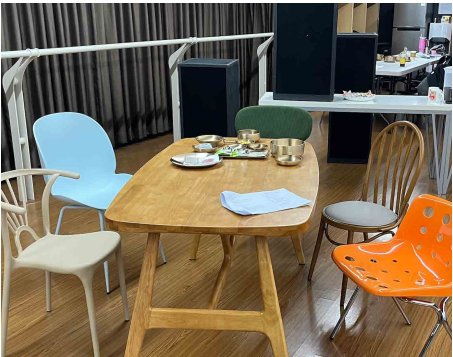


-대본 최종 완료(10월 9일 / 이후에도 작은
수정은 이루어짐)

11월

-첫 런스루(11월 6일)

-내부 오픈 리허설(11월 14일)





김유림
유림 역

연극 <현장설명회> <레인저스 케이크> <검은 쥐의 아이들>



김은희
은희 역

연극 <시라노 드 베르주라크> <고목> <생활의 비용> <베로나의 두 신사>



이화정
화정 역

연극 <상호작용에 대한 고찰> <생활의 비용> <시라노 드 베르주라크>
<베로나의 두 신사> <누수공사>



정대진
대진 역

연극 <커튼> <페이스타임> <열차>
뮤지컬 <광장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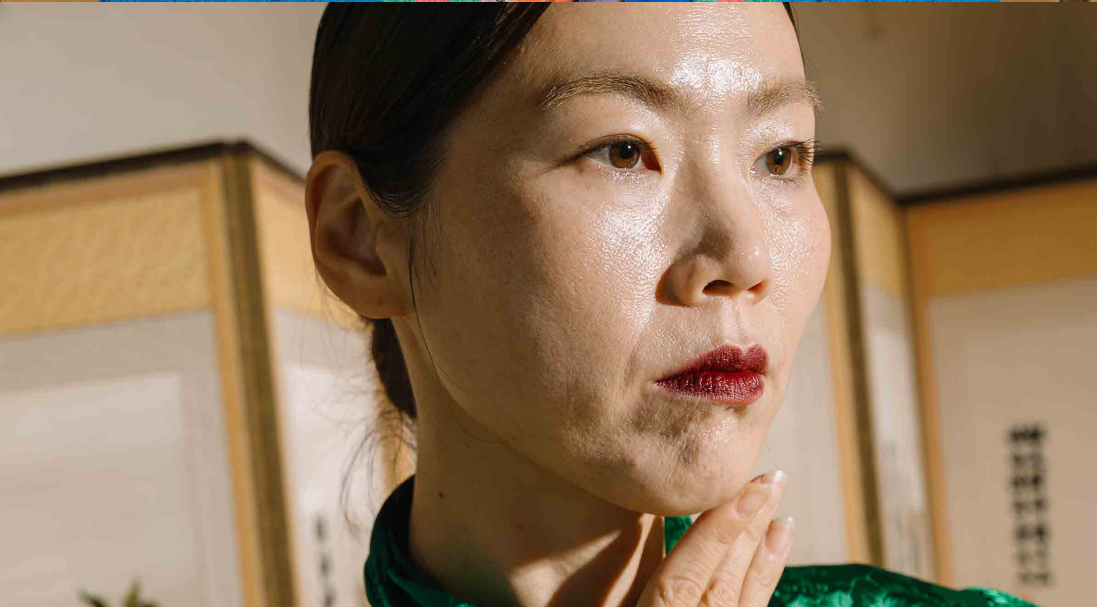
황미영
미영 역



황순미
순미 역

연극 <분장실> <성공적인 직업생활> <홍평국전> <삼애>
<영월, 할머니>





기획·제작
두산아트센터, 호랑이기운

분장디자인
정지윤

작/연출
이오진

그래픽디자인
정김소리

작/출연
김유림, 김은희, 이화정,
정대진, 황미영, 황순미

홍보사진
강희주

작곡
단편선

티켓매니저
김연경

안무
김이슬

접근성매니저
박하늘

드라마터그
장지영

한글자막제작
임민정

조연출
박세련

자막오퍼레이터
한혜진

무대/소품디자인
장호

조명오퍼레이터
박소은

조명디자인
신동선

음향오퍼레이터
박세련

음향디자인
배미령

기록사진
이서연

음향감독
김나연

기록영상
정근호

의상디자인
EK

무대감독
김성덕

의상 디자인 어시스트
최새봄

무대조감독
주준성

의상 제작
이케이코스튬(EKCOSTUME)

프로듀서
강윤지

두산아트센터

센터장
강석란

예술사업1팀장
김요안

공연기획
남윤일 신가은 이정민

홍보마케팅
강소라 강소정 박지희 김지영

티켓
이연서

사무
유은우

예술사업2팀장
박찬종

전시기획
장혜정 유진영 강하람 이윤서
이예인

교육기획
정다운 김서진 이담빈

기술총괄
황동철

음향
신승욱 류호성

조명
황동철 왕은지 김수민

무대
강현후 박소연

하우스
권지은 유지민

하우스 안내원
김예지 이준(헤드 어시스턴트
매니저)
감재원 고한준 권현수 기나연
김경미 김상윤 김수빈 김의진
김하나 문주아 송해원 신아영
안승한 양서은 이수민 이승훈
이재빈 이채민 이하온 이현지
임소은 전윤희 제영주 조수빈
차승준 하수영

두산연강예술상

두산연강예술상은 두산그룹 창업의 초석을 다지고 인재양성에 힘써온 연강(蓮崗) 박두병 초대회장의 뜻을 이어 공연·시각 예술 분야에서 젊은 예술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에 제정한 상입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이 미래라고 생각하는 두산의 의지와 생각을 담아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합니다.

후보자 자격

공연·미술 분야에서 독자적인 예술세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가는 40세 이하 대한민국 국적의 예술가

선정과정

심사위원 선정 → 후보 추천 및 심사 → 수상자 확정

상금 및 부상

공연예술부문

— 수상자 1명(팀)

— 상금 3천만 원

— 공연 제작비 지원

시각예술부문

— 수상자 1명(팀)

— 상금 3천만 원

— 전시 지원

— 두산 해외 레지던시 3개월 입주 지원

수상자(2010-2025)

공연예술부문

전서아(2025) 강보름(2024) 이오진(2023) 이홍도(2022) 설유진(2021)

윤혜숙(2020) 윤미현(2019) 김정(2018) 이연주(2017) 구자혜(2016) 이자람(2015)

이경성(2014) 성기웅(2013) 김은성(2012) 윤한술(2011) 김낙형(2010)

시각예술부문

박정우(2025) 정여름(2024) 유신애(2023) 정희민(2022) 업체eobchae(2021)

김경태(2020) 김주원(2019) 이윤이(2018) 권하윤(2017) 김희천 박광수

이호인(2016) 강정석 오민 유목연(2015) 강동주 안정주 이윤성(2014) 김민애 김영나

차재민(2013) 김상돈 김지은 장지아(2012) 박주연 이소정 이재이(2011) 구동희

김시연 박미나(2010)

DOOSAN
ART LAB

공연
2026

1.15.- 3.28.
두산아트센터
Space111

기획
두산아트센터

가격
전석 10,000원

문의·예매
두산아트센터
doosanartcenter.com
02-708-5001
NOL 티켓
nol.interpark.com
1544-1555

음이온 ummeeeonn

박소영

백혜경

컨컨 CONTCONN

윤주호

진윤선

황지영

손현규

두산은 젊은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도를 응원하고 지원합니다



